

과학과 상상력의 중첩성*

홍명희
(경희대학교)

I. 들어가는 말

1938년, 당시의 문학계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던 바슐라르라는 한 과학철학자가 쓴 한권의 책이 단번에 문학계의 화두로 떠오르게 된다. 그 책은 ‘불의 정신분석’이었다. 그 책의 내용은 서문에서 밝힌 객관적 인식의 확립이라는 포부와는 다르게 과학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내용은 그때까지 서구 사상계에 알려져 있던 이미지라는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 후로 연달아 나온 바슐라르의 저서들은 이미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오면서 이미지와 상상력의 위상을 바꿔놓았고, 상상력 연구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바슐라르로 인해 촉발된 인간의 상상력 영역에 대한 연구는 인문학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그 영향력은 인문학을 넘어 갈수록 확대되어 가고 있다. 오늘날 많은 학문 분야에 있어서 상상력은 주된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상상력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미지와 상상력은 이제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 또는 ‘이성을 방해하는 방해물’이라는 부당한 속박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원초적 요소

* 이 논문은 2013년 11월 9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발표된 「현대 비평이론으로서의 상상력 연구」의 일부를 수정, 발전시킨 것이다.

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 같은 이미지와 상상력에 대한 광범위한 수용의 출발점은 단연 바슐라르의 이미지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바슐라르의 이미지론에 대해서는 흔히 ‘상상력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는 평을 하면서도, 정작 그의 이미지론이 어떠한 점에서 기존의 이미지에 대한 생각들과 차별화를 이루는가에 대해서는 깊은 천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 바슐라르는 이미지라는 현상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유일한 연구자가 아니다. 이미 바슐라르 이전에 서구 사상계에서 플라톤 이후 많은 철학자들이 상상력과 이미지에 대한 언급을 했었고, 바슐라르 등장 직전에도 당시 프랑스 철학의 주류를 대표 하던 베르그손이 시간의 개념과 관련하여 이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였다. 사르트르 역시 1936년에 『상상력 *L'imagination*』, 1940년에 『상상계 *L'imaginaire*』라는 주요한 저서를 내놓았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 성과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반면에,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던 바슐라르의 이미지론은 왜 그토록 각광을 받게 된 것일까? 바슐라르의 이미지의 출발점이 기존의 시각과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

이미지에 대한 바슐라르의 정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은 아마도 ‘이미지는 특수한 현실¹⁾이다’라는 말과 ‘이미지는 이미지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²⁾’라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지들은 원초적 정신적 현실들³⁾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미지를 질식시키는 것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말들은 사실은 동어반복에 의한 모순된 표현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해는 필연적으로 의식의 차원에서 개념들의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한 개념의 개입 자체를 배제하면서 이미지를 설명한다는 것은 이미지에 대한 설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미지의 필연성을 납득시킬 수 없다는 모순에 빠지게 한다. 즉 이미지는 특수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합당한 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논

1) G. Bachelard, *La poétique de l'espace*, p. 3.

2) G. Bachelard, *La poétique de la rêverie*, p. 46.

3) G. Bachelard, *L'air et les songes*, p. 297.

4) G. Bachelard, *La poétique de la rêverie*, p. 45.

거를 제시할 사고나 이해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슐라르는 왜 이러한 자기 모순적인 표현을 통하여 이미지를 제시하려고 했을까?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지금까지 바슐라르 시학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상상력 연구 이전의 바슐라르의 행적을 되짚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흔히 바슐라르가 상상력의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과학철학자로서의 길고도 훌륭한 이력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의 상상력 연구가 과학철학으로부터의 개종이라고 말하는 연구자⁵⁾도 있지만, 과학철학과 상상력 연구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선을 긋는 연구자들이 대부분이다. 사실 지금까지의 바슐라르 연구는 대부분 바슐라르의 이미지와 상상력 연구 시작의 원인을 개인적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했다. 즉 바슐라르는 과학과 문학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에 있어서 재능을 가진 독특한 인물이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바슐라르의 상상력 연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과학철학이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영역, 즉 과학철학을 포괄하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크고 새로운 영역에의 도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바슐라르의 이미지론은 과학철학의 정점에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는 새로운 영역이었다. 그가 이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이미지의 개념을 발견하게 된 것은 그때까지의 과학철학의 업적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바슐라르가 과학철학의 분야에서 정립했던 새로운 과학철학의 정신은 그로 하여금 그때까지의 이미지와 상상력을 대하던 서구 사상의 조류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미지를 바라보게 해 주었고, 그로 인해 그가 파악하게 된 인간의 상상력의 세계는 과학의 세계를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상상력의 세계는 과학의 세계와는 다른 질서에 의해 작동하는 다른 층위의 세계이고,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이다. 과학과 상상력, 이 두 세계는 서로 병치되어 있는 상태로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중첩된 상태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과학철학과 상상력 연구 전체를 통하여 바슐라르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이 두 세계의 조화로운 종합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는 핵심이라는 것이다.

5) C.f. Jacques Gagey, *Gaston Bachelard ou la conversion à l'imaginaire*.

II. 양자역학의 등장과 새로운 과학 정신

과학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바슐라르 인식론의 주 연구 대상은 사실 오늘날 현대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이라 부르는 미세 물리학 영역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다. 우리가 종합적인 차원에서 바슐라르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의 등장에 대한 약간의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19세기 초에 영국의 돌턴 John Dalton이 원자설을 주장한 이래로 원자의 개념은 현대 화학의 기본 개념이 되었지만, 20세기 초에 이를 때까지 현실에 있어서 원자는 단순히 현상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수학적 개념일 뿐이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1905년 아인슈타인이 물 위에 떨어뜨린 꽃가루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브라운 운동을 설명함으로써 원자의 존재를 증명하게 된다. 아인슈타인으로 인해 원자의 존재는 과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졌고, 과학계에는 원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물결이 생겨나게 된다. 바로 양자역학의 세계가 열리게 된 것이다. 1910년에 러더퍼드 Ernest Rutherford는 원자가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러더퍼드는 원자의 모습을 마치 태양계처럼 한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들이 궤도를 이루면서 회전하는 모형으로 설명했다. 이로 인해 원자는 돌턴이 생각했던 것처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가 아니라 고유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세계, 즉 아원자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물리학계에는 대혼란의 시기가 찾아오게 된다. 원자의 구조는 원자 크기의 10,00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원자핵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일 뿐이라는 것을 실험에 의해 확인했지만, 원자가 어떻게 그러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당시의 어떠한 물리법칙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1913년에 보어 Niels Henrik David Bohr는 러더퍼드의 원자모형에서 진일보한 새로운 원자모형을 제안하면서, 전자가 양자도약 Quantum Leap현상을 통해 자신의 궤도를 바꾸면서 고유한 색의 빛을 발산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보어 자신도 어찌서 이러한 전자의 양자도약이 일어나는 지는 설명할 수 없었다. 전자의 운동은 때로는 파동으로 때로는 입자의 운동으로 나타났

고, 이러한 현상은 그때까지의 어떠한 물리적 지식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했다. 수많은 천재적 물리학자들이 원자의 구조를 밝혀내려 했지만 실패로 끝나게 되고, 결국 하이젠베르크 Werner Karl Heisenberg의 불확정성의 원리 Principe d'incertitude가 등장할 때까지 원자의 구조는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였다.

1927년 솔베이 회의에서 양자역학의 정통으로 인정받게 된 코펜하겐 해석의 핵심을 이루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의 요점은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불가능성은 물질의 물리적 성질 때문이지 측정 장치나 측정 기술 때문이 아니다. 다시 말해 불확정성은 측정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측정의 대상인 입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성질에 기인하는 것이다. 원자의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의 물리학과 수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또 다른 차원에 속해 있는 것이고, 원자는 그가 속해 있는 차원의 고유한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양자의 세계는 우리 세계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법칙과는 전혀 법칙에 의해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의 상식이나 실제 세계에서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들은 양자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의 핵심은 현실을 넘어선 세계에 대한 설명은 현실에 존재하는 단위를 통해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Ainsi une des conséquences philosophiques les plus importantes du principe de Heisenberg est sans doute la limitation des attributions réalistiques. Prétendre dépasser les bornes des relations d'incertitude, c'est employer les mots position et vitesse en dehors du domaine où ils ont été définis, où ils sont définissables. En vain on objectera que des notions si fondamentales ont un sens universel ; il faudra toujours convenir que les qualités géométriques n'ont aucun droit à être appelées des qualités premières. Il n'y a que des qualités secondes puisque toute qualité est solidaire d'une relation.

이와 같이 하이젠베르크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결과들 중의 하나는 아마도 현실적 추정들의 제한일 것이다. 불확정성의 관계들의 한계들을

뛰어 넘는 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위치와 속도의 용어들을 그것들이 정의된 영역을 벗어나서, 즉 정의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서 사용하는 것이다. 심오한 관념들은 보편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반대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다. 기하학적 특질들은 최초의 특질들이라고 불리울 만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곳에는 이차적인 특질들만이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모든 특질은 관계와 연계되어있기 때문이다.⁶⁾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로 인해서 구세대와 새로운 세대로 나누어서 대립하던 물리학계의 주도권은 새로운 세대에게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 후로 양자역학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는 새로운 입자인 쿼크의 발견, 반물질과 새로운 입자들의 발견, 우주의 구성 원리에 대한 이해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바슐라르가 과학철학의 분야에서 이루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물리학 즉, 양자역학의 등장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과학 정신의 철학이었다. 그는 양자 역학의 등장 이후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과학계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의 전통적 합리주의에 기반한 실증주의적 과학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과학 정신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가 혁신적으로 제안한 것은 인식론적 단절 *la rupture épistémologique*과 인식론적 장애물 *l'obstacle épistémologique*의 개념이었다. 그는 20세기 초에 이루어진 물리학의 혁신적인 변화들은 기존의 뉴턴 물리학의 연장이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즉 뉴턴 물리학과 양자역학 사이에는 분명한 ‘단절’이 존재하기 때문에 뉴턴 물리학으로 원자의 구조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바슐라르의 단절의 개념은 선조적인 개념이 아니다. 다시 말해 물리학의 발전이라는 직선 위의 한 지점에서 뉴턴 물리학이 끊어지고 다른 지점에서 양자역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물리학은 애초부터 존재하는 층위 *échelle*가 다른 것이다. 쉽게 말해 건물의 1층에 있는 물건과 2층에 있는 물건은 처음부터 위치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1층에서 사물을 찾아내는 가장 완벽한 방법론이라 할지라도 2층에 있는 물건을 찾아낼 수 없는 것이다.

6) G. Bachelard, *Le nouvel esprit scientifique*, pp. 129-130.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것과 과감히 ‘단절’된 새로운 것, 즉 새로운 과학 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유클리드 기하학을 뛰어넘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나 뉴턴의 물리학을 뛰어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의 등장 등이다.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발상의 등장에는 항상 과거의 성공이 장애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다고 믿는 유클리드 기하학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일상의 물리 현상들에 대한 완벽한 설명인 뉴턴의 물리학에 대한 확신은 상대성이론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즉 과거에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것일수록 새로운 것에 대한 가장 큰 인식론적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이때 과감히 장애물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야만 새로운 것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III. 새로운 과학 정신과 새로운 이미지 정신

바슐라르가 이미지의 가치를 재발견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과학 정신의 배경에서였다. 바슐라르의 이미지의 새로운 의미에 대한 발견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등장 당시의 혁신성을 떠올리게 한다. 이 말은 바슐라르가 단순히 양자역학의 개념을 가져다 썼다는 것이 아니라 불확정성의 원리가 기존의 물리학의 시각을 바꿔 놓은 것처럼 바슐라르의 이미지론이 기존의 이미지에 대한 시각을 바꿔놓았다는 뜻이다.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의 원리를 통해 주장한 내용의 핵심은 현대 과학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세계의 원리와 현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가 존재 한다는 것이고, 그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시각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⁷⁾ 바슐라르의 이미지론이 혁신적이었던

7) 실제로 70년대 이후의 양자역학의 발달은 하이젠베르크의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진전이 되었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입자들은 또 다시 쿼크라고 부르는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입자들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나왔는데 그 중 현재까지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론이 끈 이론(string theory)이다. 끈 이론에 따르면 물질의 구성 원리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은 하이젠베르크와 같이 또 다른 차원의 시각으로 이미지를 보았다는데 있다. 그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단지 미시물리학에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형이상학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과학 정신의 표현이라고 보았다.

Quel curieux destin philosophique a suivi le principe de Heisenberg! On peut suivre son évolution à travers les métaphysiques les plus opposées. Dans son inspiration première, il apparaît comme essentiellement positiviste, comme un prudent retour à une science physique dont toutes les propositions doivent être énoncées en termes d'expérience. Bientôt son succès envahissant conduit à le généraliser, à le faire jouer entre des couples de variables de plus en plus nombreux.

하이젠베르크의 원리는 얼마나 기묘한 철학적 운명을 따르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것의 진화를 가장 대척점에 있는 형이상학들을 통해서 추적해 볼 수 있다. 그것이 주는 최초의 영감에서는, 그것은 본질적으로 실증주의적인 것처럼 보인다. 즉, 마치 모든 명제들이 경험의 용어로서 제시되어야 하는 물리학으로의 조심스러운 회귀처럼 보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계를 뛰어넘는 그것의 성공은 그것을 일반화 시키고, 그것을 점점 더 수가 많아 지는 변수 쌍들 사이에서 작동하도록 만든다.⁸⁾

바슐라르는 이러한 새로운 과학 정신의 세계관이 과학의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세계 *psyché humaine*를 바라보는 시각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근대까지의 서구 사상사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흔히 온갖 것들이 혼재하는 혼돈의 상태로 여겨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는 이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성인 인간의 정신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은 모두 '비이성'이라는 낙인을 찍으며 배척해 왔다. 합리주의적 이성이 오랜 시간 동안 서구의 사상사를 대변해 온 것은 이성 자체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

3차원 세계의 법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며, 11차원의 계산식에 의해서만 파악이 가능하다.

8) G. Bachelard, *La philosophie du non*, pp. 102-103.

라, 이성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성은 고대부터 서구 사상계의 유일한 방법론으로 여겨져 왔던 이원론의 배경을 바탕으로 절대선으로 균립하면서 자신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모두 비이성이라는 이름으로 배척했다.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인식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성은 그 자신이 속해 있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일종의 카오스 상태로 판단한다. 그리하여 자신이 세운 질서 안에 속하는 요소들만 인정하고 나머지 것들은 모두 무의미한 것, 해로운 것으로 규정하면서 절대적으로 버려야 할 요소들이라 규정짓는다. 그러나 바슐라르는 ‘인간의 정신세계에는 무의미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⁹⁾라고 분명히 말한다. 인간의 정신세계는 무의미한 요소들이 무질서하게 뒤섞여있는 세계가 아니라 수많은 요소들이 각자의 차원에서 질서를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세계이다. 바슐라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세계에는 이성이 파악해 온 정신 *esprit*의 세계 외에도 이미지로 이루어진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대과학이 추구하던 객관적 인식의 세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이미지와 상상력의 세계이다. 그러므로 과학철학의 개념인 인식론적 단절처럼 인간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익숙한 정신의 세계와 별도로 존재하는 또 다른 상상력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Ainsi, en dehors de toute connaissance objective, malgré tout examen placide, l'imagination reprend ses droits, elle met en mouvement et en vie les images les plus immobiles et les plus inertes. Elle fait couler la matière du ciel.

이와 같이 모든 객관적 인식을 넘어서, 모든 평온한 실험에도 불구하고, 상상력은 자신의 권리들을 다시 취하고, 가장 굳어버리고 가장 무기력한 이미지들에게 움직임을 주고 생명을 준다. 상상력은 하늘의 물질을 흐르게 한다.¹⁰⁾

9) ‘Nous sommes d'ailleurs convaincu qu'il n'y a rien d'insignifiant dans la psyché humaine. 그밖에도 우리는 인간의 정신세계 안에는 무의미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G. Bachelard, *La poétique de l'espace*, 129.)

10) G. Bachelard, *L'air et les songes*, p. 226.

이러한 상상력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합리적 이성과의 단절이다. 왜냐하면 상상력이 속해있는 감성의 세계는 일상적인 상식과 합리성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감성의 세계는 이성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성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바슐라르가 상상력의 세계를 일상적인 물질세계와 구분하는 것은 어찌 보면 현대 물리학에서 미시 물리학의 세계를 구분해 내는 것과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상상력의 세계의 위상은 물리학적 기준과는 다르다. 즉 물리학에 있어서의 세계 구분의 핵심은 관찰 대상의 물리적 크기에서 기인하는 반면에, 상상력의 세계는 그것이 일상적인 세계와 중첩되어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미세물리학의 세계는 그 현상들의 결과만이 일상세계에 영향을 끼치지만, 상상력의 세계에서는 현상의 원인과 결과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즉 인간의 정신세계는 상상력의 세계가 일상세계와 중첩되어 있는 세계이고, 합리성의 규칙이 아닌 자신만의 고유한 법칙을 따르는 세계이다. 이 중첩되어 있는 세계를 구성하는 결정적 요인들의 하나가 바로 이미지이다. 이것은 바슐라르가 말한 ‘새로운 과학 정신’이라는 표현에 기대어 말하자면 일종의 ‘새로운 이미지 정신’이라 부를 만한 것이다.

이러한 바슐라르의 ‘새로운 이미지 정신’을 이해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이미지는 특수한 현실이다’라는 바슐라르의 말은 결코 비유나 수사법적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인식론의 차원에서 파악해야 할 존재론적인 표현이다. 즉 인간의 정신세계는 결코 기존의 합리주의적 관념과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이고 이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요소가 이미지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는 존재론적 차원에서 현실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것이다.

L'imagination n'est pas, comme le suggère l'étymologie, la faculté de former des images de la réalité ; elle est la faculté de former des images qui dépassent la réalité, qui chantent la réalité.

상상력은 그 어원이 암시하는 것처럼, 현실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을 뛰어 넘고, 현실을 노래하는 이미지들을 만들

어내는 능력이다.¹¹⁾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의 세계가 이 세상 물질의 근원이듯이, 이미지는 이성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 정신의 또 다른 세계의 근원인 것이다. 이미지는 이 세계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법칙에 의해 작동한다. 그러므로 다른 세계의 잣대인 철학적 관념으로 이미지를 그려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바슐라르는 과학철학에서의 인식론적 단절처럼 관념과 이미지의 분명한 단절을 요구한다.

Nous nous sommes alors essayé à une compréhension mixte, à une compréhension qui accueillerait à la fois des images et des idées, des contemplations et des expériences. Mais cette compréhension mixte est impure et qui veut suivre l'extraordinaire développement de la pensée scientifique doit rompre définitivement avec les liens de l'image et du concept.

우리는 복합적인 이해, 이미지와 관념들 즉 명상들과 실험들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이해를 시도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적 이해는 순수하지 못하고, 과학적 사고의 예외적인 발전을 따르기를 원하는 이는 이미지와 관념의 관계들을 분명하게 끊어야 한다.¹²⁾

바슐라르 이전에 이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이미지를 이성에 의해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미시세계의 원자의 모양을 거시세계의 경험적 사실로 설명하려는 것과 같이 본말이 전도된 모양이다. 바슐라르의 이미지론은 이러한 인간 존재를 파악하려는 노력에 있어서의 오해를 바로 잡은 것이다. ‘시적이미지는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개념처럼 구성적인 것이 아니다.’¹³⁾라는 바슐라르의 말은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11) G. Bachelard, *L'eau et les rêves*, p. 23.

12) G. Bachelard, *La poétique de la rêverie* p. 182.

13) ‘L'image poétique est en effet essentiellement variationnelle. Elle n'est pas, comme le concept, constitutive. 사실 시적 이미지는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관념처럼 구성적인 것이 아니다.’ (G. Bachelard, *La poétique de l'espace*,

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합리적 개념의 차원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미지는 사고에 앞서 있다’¹⁴⁾라는 바슐라르의 주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미지는 사고에 앞서있다는 표현은 단순히 주체와 객체의 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고와 이미지는 서로 다른 차원의 정신 활동이다. 이 둘은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지는 사고의 영역보다 더욱 깊고 미세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IV. 중첩된 세계로서의 과학과 상상력

이미 알고 있듯이 바슐라르의 상상력 연구는 과학철학적 목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¹⁵⁾ 그가 과학적 인식론의 궁극적 목표였던 객관적 인식을 이루기 위해서 제시했던 인식론적 장애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미지였다. 그는 이미지는 생생하고 자연스러워서 이해하기가 쉽지만, 바로 그 특성 때문에 관찰자로 하여금 자신이 본 것이 진리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대표적인 인식론적 장애물이라고 말한다. 그는 관찰과 과학적 실험 사이에는 분명한 단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미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이다.¹⁶⁾ 그러나 첨단 물리학적 사실에 입각한 새로운 과학 정신으로 객관적 인

p. 3.)

14) ‘l’image est avant la pensée. 이미지는 사고에 앞서 있다’ (Ibid. p. 4.)

15) Cf. 홍명희, 『상상력과 가스통 바슐라르』, pp. 28-30.

16) ‘La première expérience ou, pour parler plus exactement, l’observation première est toujours un premier obstacle pour la culture scientifique. En effet, cette observation première se présente avec un luxe d’images ; (...) Nous commencerons notre enquête en caractérisant cet obstacle et en montrant qu’il y a rupture et non pas continuité entre l’observation et l’expérimentation.’ 최초의 경험 또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최초의 관찰은 언제나 과학적 문화에 대한 최초의 장애물이다. 사실, 이 최초의 관찰은 화려한 이미지들과 함께 나타난다. (...) 우리는 이 장애물의 특성을 규정하면서, 관찰과 실험 사이에는 연속성이 아니라 단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연구를 시작할 것이다.’ (G. Bachelard, *La formation de l’esprit scientifique*, p. 19.)

식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추구하던 그는 이미지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부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즉 이미지는 자신이 막연히 생각 했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로 산재하고 있으며,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인간 정신세계 psyché humaine의 기본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마치 미세물리학 세계의 입자들이 일상세계의 원리나 법칙과는 전혀 다른 자신만의 고유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미지도 자신만의 고유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리학자들이 원자라는 대상 안에서 엄청난 신세계를 발견한 것처럼, 바슐라르는 이미지라는 대상 안에서 무한한 세계를 발견한 것이다. 그 결과 바슐라르는 이미지가 합리적 사고에 의해 체험될 수 없음을, 또 이미지에 대해서 과학철학자로서의 엄격성을 지킬 수 없음을 기꺼이 고백한다.

Rationaliste ? Nous essayons de le devenir, non seulement dans l'ensemble de notre culture, mais dans le détail de nos pensées, dans l'ordre détaillé de nos images familières. Et c'est ainsi que par une psychanalyse de la connaissance objective et de la connaissance imagée nous sommes devenu rationaliste à l'égard du feu. La sincérité nous oblige à confesser que nous n'avons pas réussi le même redressement à l'égard de l'eau. Les images de l'eau, nous les vivons encore, nous les vivons synthétiquement dans leur complexité première en leur donnant souvent notre adhésion irraisonnée.

합리주의자? 우리는 그렇게 되려고 노력한다. 우리 문화의 전체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들 사고의 세밀함 안에서, 우리의 친근한 이미지들의 섬세한 질서 안에서 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불에 대해서 합리주의자가 된 것은 객관적 인식과 상상된 인식에 의해서였다. 학자로서의 성실성이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일한 엄격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한다. 우리는 여전히 물의 이미지들을 체험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종종 비이성적인 집착을 부여하면서 그들의 원초적 복합성 안에서, 물의 이미지들을 총체적으로 체험하고 있다.¹⁷⁾

17) G. Bachelard, *L'eau et les rêves*, 10

이와 같은 바슐라르의 이미지 연구의 시작을 보면, 마치 바슐라르의 상상력 연구가 과학철학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새로운 돌파구로서 시작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즉 과학철학의 선이 단절 되고 상상력 연구의 선이 새로이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두 연구의 영역을 단순히 단절의 개념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시각이다. 바슐라르는 이미지와 상상력 연구를 시작한 이후에도 과학철학을 결코 놓지 않았으며, 그의 후기의 과학철학 저서들은 그의 과학철학의 완성작으로 평가된다. 즉, 바슐라르의 상상력 연구가 시작된 이래로 과학철학과 상상력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영역의 연구는 서로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¹⁸⁾ 그렇지만 이 두 영역의 연구 내용은 서로 다른 편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바슐라르의 상상력 연구의 내용 중에는 과학철학과 관련된 내용이 적지 않게 들어 있다.

Dans ce champ d'imagination sensibilisée, on peut considérer une sorte de *principe d'indétermination* de l'affectivité dans le sens même où la microphysique propose un *principe d'incertitude* qui limite la détermination simultanée des descriptions statiques et des descriptions dynamiques.

예민해진 상상력의 장 안에서 우리는, 미세물리학이 고정된 위치에 묘사와 움직임에 대한 묘사를 동시에 시도하는 결정주의를 제한하는 불확정

18) 바슐라르를 국내에 처음 소개한 초기 연구자들 중의 한 사람인 김현은 이 두 경향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바슐라르 저서들의 간행 연도에 근거하여 ‘과학적으로, 다시 말해 객관적으로 인간 행위를 총체적으로 설명하기에 힘들 때 그는 상상력 연구로 달려가는 것이며, 그것의 가치부여작용으로 인간행위가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그는 다시 과학철학으로 되돌아온다. 그 끊임없는 왕복 현상이야말로 그의 사상의 역동주의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바슐라르의 과학철학 연구와 상상력 연구는 하나의 종합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본다. (Cf. 김현, “바슐라르적 콤플렉스 개념”, 『바슐라르 연구』 pp. 186-189.) 이러한 김현의 견해는 바슐라르의 두 연구 경향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김현은 바슐라르의 궁극의 목적은 이 두 경향을 ‘융집’하는 데 있다고 본다.

성의 원리를 제안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일종의 감성의 *비결정주의의 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다.¹⁹⁾

Il semble au rêveur que plus petits soient les êtres, plus actives soient les fonctions. Vivant dans un espace petit, ils vivent d'un temps rapide. En enfermant l'onirisme, on le dynamise. Pour un peu, l'on proposerait un principe de Heisenberg pour la vie onirique.

몽상가에게는 존재들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기능들이 더 활발해지는 것 같다. 작은 공간 안에서 살면서 그 존재들은 빠른 시간을 산다. 몽환상태를 가두면서 우리는 그것을 역동적으로 만든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몽상의 삶에 대한 하이젠베르크의 원리를 제안하는 것이다.²⁰⁾

또 위의 예문들과는 반대로 과학철학 연구의 한 복판에서도 상상력 연구의 시작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C'est du côté esthétique que nous trouverions des valeurs synthétiques comparables aux symboles mathématiques. En se souvenant de ces beaux symboles mathématiques où s'allient le possible et le réel ne peut-on évoquer les images mallarméennes ?

우리가 수학적 상징들에 비견할만한 종합적 가치들을 찾고자하는 것은 미학적 측면에서이다. 가능성과 실재가 서로 결합하는 이 아름다운 수학적 상징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말라르메의 이미지들을 환기할 수 없는 것일까?²¹⁾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바슐라르의 두 연구 경향, 즉 현대 물리학적 내용에 대한 철학과 인간의 상상력에 대한 탐구, 좀 더 간단히 말하자면 과학의 세계와 상상력의 세계가 갖는 관계는 결코 서로 관련 없는 평행선이거나, 단절과 극복을 반복하는 선조적인 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동일한 시간과

19) G. Bachelard, *La terre et les rêveries de la volonté*, p. 77.

20) G. Bachelard, *La terre et les rêveries du repos*, p. 17.

21) G. Bachelard, *Le nouvel esprit scientifique*, p. 60.

공간에 속하면서 서로 다른 층위에서 작동하는 중첩된 *superposé* 세계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즉 상상력의 세계는 아무런 근거 없이 홀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과학으로 대변되는 합리성의 세계에 중첩되어 있는 세계인 것이다. 상상력은 근본적으로 현실과 차단된 채로 존재하는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현실에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현실과 겹쳐진 채로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바슐라르는 이미지가 현실과 비현실의 협력의 결과라고 말한다.²²⁾ 상상력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이성의 활동과는 다르다. 상상력은 이성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종합을 지향하면서 현실을 포착하고 ‘숨어있는 것에서 더 많은 현실성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러한 상상력의 활동을 바슐라르는 중첩의 변증법 *la dialectique de superposition*이라고 표현한다.

Et c'est ici qu'on peut saisir la différence entre les dialectiques de la raison qui juxtapose les contradictions pour couvrir tout le champ du possible et les dialectiques de l'imagination qui veut saisir tout le réel et qui trouve plus de réalité à ce qui se cache qu'à ce qui se montre. Le mouvement est inverse des dialectiques de juxtaposition aux dialectiques de superposition.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가능성의 모든 영역을 커버하기 위하여 대립항들을 병치시키는 이성의 변증법들과 모든 현실을 포착하기를 원하고 드러나 있는 것보다는 숨어있는 것에서 더 많은 현실성을 발견하는 상상력의 변증법들의 차이를 포착할 수 있다. 중첩의 변증법에 있어서는 진행 방향이 병치의 변증법의 반대이다.²³⁾

이성의 변증법에서는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항들의 타협 또는 절충에 의해서 종합이 이루어진다. 즉 이성의 세계에서는 현실의 종합이 궁극적인 목적

22) 'L'image s'établit dans une coopération du réel et de l'irréel, par le concours de la fonction du réel et de la fonction de l'irréel. 이미지는 현실과 비현실의 협력 속에서, 현실의 기능과 비현실의 기능의 경쟁에 의해서 자리를 잡는다.' (G. Bachelard, *La poétique de l'espace*, p. 67.)

23) G. Bachelard, *La terre et les rêveries du repos*, p. 25.

이 된다. 그렇지만 전체를 바라보는 상상력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전체적인 종합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사물로부터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될 때 그것이 논리적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그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이다.

상상력의 세계는 바로 이러한 중첩의 변증법의 형태로 우리의 현실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바슐라르의 이미지는 특수한 현실이다라는 말은 인식론의 차원에서 파악해야 할 존재론적인 표현이다’라는 말을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미지는 현실 세계와 중첩되어 있는 상상력의 세계에서 현실 세계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스스로가 변화하고, 또 세계를 변화시키는 또 다른 현실이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 ‘이미지가 새롭을 때, 세상이 새롭다’²⁴⁾라는 바슐라르의 말처럼 이미지는 현실과 떼어 수 없게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IV. 나가는 말

프랑스는 사실 감성과 상상력의 나라가 아니라 이성과 합리성의 나라이다. 그것이 바슐라르로부터 시작된 상상력 연구가 더욱 두드러지게 보이게 한 기본적인 여건이었고, 상상력 연구가 더욱 번성하게 만든 역설적 요인이었다. 바슐라르가 현대 과학의 최전선을 설명하고자 한 과학철학에서 상상력 연구로 연구의 지평을 넓히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양자역학의 등장으로 대변되는 20세기 초의 과학의 눈부신 발전은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알게 해 주었다. 현대 과학은 연금술 등 인간의 오랜 수수께끼들에 대한 답을 주었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과거와 비할 수 없는 과학 기술 문명이라는 결과물들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극소수의 전문가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에게 과학적 발견은 다른 세계의 이야기일 뿐이고, 인문학자들에게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히스 입자의 발견에 대해 세계 과학계가 열광한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는

24) G. Bachelard, *La poétique de l'espace*, p. 58.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첨단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상상력이란 인간의 삶을 위로하는 개인적인 사치일 뿐, 자신들의 물리적 수학적 세계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과학과 상상력은 서로 동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다루면서도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처럼,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척점에 있는 지식들이었다. 한쪽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다른 쪽 분야의 지식들은 너무도 먼 지점에 있어서 서로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²⁵⁾

바슐라르가 위대한 것은 이러한 두 세계의 위상을 하나로 통합해 내었다는데 있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에서 기존의 물리법칙들을 뒤엎으면서 새로운 진리를 밝혀냈듯이, 바슐라르는 이미지의 연구를 통해서 인간정신의 미지의 영역을 설명해 내면서 기존의 철학적 관점을 극복해내었다. 바슐라르가 생각하는 철학은 바로 이러한 두 세계를 상보적으로 연결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Tout ce que peut espérer la philosophie, c'est de rendre la poésie et la science complémentaires, de les unir comme deux contraires bien faits.

철학이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은 시와 과학이 상보적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들을 잘 만들어진 두 개의 대립 항으로 연결하는 것이다.²⁶⁾

바슐라르에 의해 이미지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 이전까지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하던 인간의 감성과 주관성의 세계의 본질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 삶의 근원적 원동력을 알게 되었다. 이미지와 상상력의 구체적인 표현인 예술은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의 삶에서 부차적이거나 잉여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인 것이다. 오

25) 예를 들어 불문학자들에게 러더퍼드, 보일, 하이젠베르크, 슈뢰딩거 등의 이름이 낯선 것처럼 물리학자들에게 스탕달, 베를렌느, 랭보, 말라르메의 이름은 낯설을 것이다.

26) G. Bachelard, *La psychanalyse du feu*, p. 10.

랜 시간 동안 합리주의적 이성의 시각에 의해 폄하되어 있던 이미지와 상상력은 바슐라르에 의해 새로운 차원의 현실로서 정당한 권리를 찾게 된다. 바슐라르가 상상력 연구의 저서에서 한 작업들은 사실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이미지들이 문학과 예술의 분야에서 얼마나 풍요롭게 드러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작업들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기존의 이미지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시각적 이미지 위주의 편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가²⁷⁾, 이미지를 또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존재의 근원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우주적 차원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바슐라르의 이미지 개념과 그의 과학철학의 이해가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두 영역이 서로 선조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본 연구는 그 문제의 성격상 더욱 정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주제는 제한된 짧은 글로 파악할 수 없는 주제이니만큼, 향후 더욱 포괄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7) ‘Le mot image est si fortement enraciné dans le sens d’une image qu’on voit, qu’on dessine, qu’on peint qu’il nous faudrait faire de longs efforts pour conquérir la réalité nouvelle que le mot image reçoit par l’adjonction de l’adjectif littéraire. 이미지라는 말은 우리가 보고, 그리고, 색칠할 때의 이미지의 의미로 너무도 강하게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지라는 말이 문학적 형용사의 부가물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새로운 현실을 획득하기 위하여 매우 긴 노력들을 해야만 했다.’ (G. Bachelard, *Fragments d’une poétique du feu*, p. 36.)

❖ 참고 문헌

- 가스통 바슐라르, 『현대물리학의 합리주의적 활동』, 정계섭 역, 민음사, 1998.
곽영직, 『양자 역학의 세계』, 동녘, 2008.
_____, 『과학기술의 역사』, 북스힐, 2009.
김현, 곽광수, 『바슐라르 연구』, 민음사, 1976.
에른스트 페터 피셔, 『슈뢰딩거의 고양이』, 박규호 역, 들녘, 2009.
R.카르납, 『과학철학입문』, 윤용택 역, 서광사, 1993.
G. Bachelard, *Le nouvel esprit scientifique*, Paris: P.U.F., 1934.
_____, *La formation de l'esprit scientifique*, Paris: Vrin, 1938.
_____, *La psychanalyse du feu*, Paris, Gallimard, 1938.
_____, *La philosophie du non*, Paris, Gallimard, 1940.
_____, *L'eau et les rêves*, Paris, José Corti, 1942.
_____, *L'air et les songes*, Paris, José Corti, 1943.
_____, *La terre et les rêveries de la volonté*, Paris, José Corti, 1948.
_____, *La terre et les rêveries du repos*, Paris, José Corti, 1948.
_____, *La poétique de l'espace*, Paris: P.U.F., 1957.
_____, *La poétique de la rêverie*, Paris, PUF, 1960.
_____, *Fragments d'une poétique du feu*, Paris, P.U.F., 1988.
G. Durand, *L'imagination symbolique*, Paris, PUF, 1964.
_____, *L'Imaginaire*, Paris, Hatier, 1994.
Jacques Gagey, *Gaston Bachelard ou la conversion à l'imaginaire*, Paris, Edition Marcel Riviere, 1969.
J.-J. Wunenberger, *Philosophie des images*, Paris, PUF, 1997.
_____, *L'imaginaire*, Paris, PUF, 2003.

❖ ABSTRACT

The superposition of Science and Imagination

HONG, Myung-Hee

Gaston Bachelard had a revolutionary progress in the field of human understanding by proposing his theory of image and imagination. His theory of the new image was so powerful, almost all areas of human science, particularly that of literary criticism, were strongly influenced and this influence continues until today. Today almost everyone accepts his theory of the image without much objection, but not rarely asked where began his transfer from the philosophy of science to the images.

We propose a hypothesis that the beginning of the new concept of Bachelard's image was inspired by studies of contemporary science, especially quantum mechanics. The Heisenberg's uncertainty principle was the core of quantum mechanics, and opens new perspectives on the material world. We could summarize the message of the uncertainty principle : the material world is made up of various layers, and the material can not be measured by the location and movement at the same time. So we must have a new point of view of another dimension to know this material world. Bachelard had accepted this view of Heisenberg and developed his own theory of epistemological rupture.

What is revolutionary in the theory of Bachelard's image is the fact that he looked at the images with the new perspective. The human psyche is another world compared to the rational world that dominates our daily lives. Bachelard insists that the image can not be explained by the concept. The fantasy world is a totally different world to that of rationality. That is why it can not be explained by the language of rationality as the concept.

The imaginary world exists independently of the real world, but it is superimposed on the real world. These two worlds are influencing each other, and it is between these two world where our daily lives continues. The declaration of Bachelard 'image is a specific reality' is never a metaphor or rhetorical expression. This is an ontological expression that must truthfully. The imaginary world is a world built on the image and it works according to its own

law. It is not a representation or copy of the real world. But the world of imagination are not alone. It exists in the same time and space with the world of science. It is superimposed with the world of science. Both two world influence each other.

Bachelard has made a revolutionary change by studying the images. He gave them their own place. It has changed the views on the images that were treated as mere representations of reality. Thanks to him, the image can have its own value, that of a factor that creates reality. Bachelard shows how we can go deep into the source of being and the universe if we look at the pictures with the eyes of other dimensions.

Key Words

이미지, 상상력, 과학철학, 바슐라르, 중첩성

Image, imagination, philosophie des sciences, Bachelard, superposition

논문접수일: 2014. 01. 25

심사완료일: 2014. 02. 28

게재확정일: 2014. 03. 12